

KRE리porter 4월 전북지회 간담회 결과

1. 회의 개요

- 목 적: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회원 농가 방문(스마트팜)
- 일 시: 2019년 4월 3일(화) 11:00~14:30
- 장 소: 전북 부안군
- 참 석: 총 7명
 - 전북지회 리porter(7명): 권승룡, 박향숙, 심요섭, 윤선웅, 임장섭, 임장옥, 이익주
- 주요 일정

시 간	일 정	비 고
11:00~12:00	견학	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(전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남로 802)
12:00~13:00	점심식사	
13:00~14:30	간담회	‘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’ 등

2. 주요 내용

1)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집

-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
 -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면허증 반납을 시행하고 있다. 우리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. 일시적인 혜택이 아닌 차가 없어도 이동할 수 있고, 다양한 편의 및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.
 -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에 운전 적성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진 시행주기를 3년 정도로 짧게 개선해 관리해야 한다.
- 농촌 일손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실태
 -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하다. 그러나 이들을

고용할 경우,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 내수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축산 헬퍼 형식을 도입해 농가에 지원하면 인력수급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효과 볼 수 있을 것이다.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.

○ 미세먼지 발생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

- 시설작물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여 실내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연료비가 많이 들었다. 또 온도가 일정치 않아 병해를 겪기도 했다. 또 가축의 호흡기 질환이나 식욕 감퇴, 농산물 생장 저하 등을 겪고 있다. 딸기 등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경우 더욱이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.

2) 회원 농가 방문(스마트팜)

- 입장섭 회원이 운영하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은 농림부 지정 유통마케팅 분야 품목광역조직으로 수박, 블랙망고수박, 양파 등을 계약재배하며 고유 브랜드인 '바뜨랑'으로 생산과 출하유통의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. 농가와의 계약재배 외에 ICT 및 스마트팜 농법을 적용한 3,200평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연중 재배하여 출하하고 있다.
- 특히 이곳은 지난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, 총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월 유리온실 준공식을 개최했다. 이로써 양액재배시설을 비롯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 시설로 2017년 완공한 1ha를 포함해 총 2.7ha 유리온실을 갖추게 되었고, 이곳에서 연간 약 1,1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22억 원의 조수익이 예상된다고 한다.
- 이곳은 아들 내외를 비롯해 가족농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화 시설 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. 사업장 내 근로자 숙박시설,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어 비교적 좋은 근무여건을 만들

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.

- 선진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농가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임장섭 회원은 농림부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어 농업계 우수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. 다만 해외수출 및 스마트팜 등 규모가 큰 사업체로 일반 농가에서 벤치마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.

3. 이모저모

